

# 라키비움(Larchiveum) 관점에서 본 국내 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 국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House: Larchiveum Perspective

이 명 호(Myongho Yi)\*  
오 삼 균(Sam-Gyun Oh)\*\*  
도 슬 기(Seulki Do)\*\*\*

###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V. 연구 결과
II. 선행 연구	1. 문학관의 기초 현황
III. 라키비움 측면에서의 문학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비교 및 분석	2. 설문 및 인터뷰 결과
IV. 연구 방법	VI. 결론 및 제언

### 초 록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자원의 양질적 증가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문화 기관에서의 복합정보 서비스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 문화 시설의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문학관은 지역 내 작가와 작품 중심의 귀중도서, 육필원고 등을 주력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문화 기관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의 기능적 관점에서 문학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 문학관이 라키비움 논의에 포함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정리하고, 국내 문학관을 대상으로 자료 관리, 전시 관리, 운영 프로그램, 정체성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키워드: 한국 문학관, 라키비움(Larchiveum), 복합공간,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기능적 측면

### ABSTRACT

With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ccumulation of digital resources, the demand on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museums and repositories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Korean literature houses as an example of larchiveum. This study explored data management, exhibits and programs of Korean literature house.

Keywords: Korean literature houses, Larchiveum, Library, Museum, Archives, Functional aspect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osephlee@smu.ac.kr)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moh21@gmail.com)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sinhwask@gmai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5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5년 11월 24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39-159,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139>]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찍이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만들어왔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은 도서자료, 유물자료, 미술품에 대한 보존 기능 및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왔다. 20세기 들어 IT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양적 증가 및 영역 확대로 이어졌고, 디지털정보에 대한 상호호환성이 확대되면서 정보 간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도서, 문서, 영상물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하나의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김유승 2012, 97).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박물관 및 도서관, 아카이브 영역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전통적인 역할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황진현, 임진희 2012, 65). 이용자와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시작된 복합공간에 대한 논의는 기관 자체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발전하였다.

유럽 및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국가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복합공간의 형태를 모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s Center), 영국의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가 있고(국립중앙도서관 2009, 1-6), 미디어센터(Media Center),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 또한 이러한 형태의 종류이다(최영실, 이해영 2012, 54-55). 2008년에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제시한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통합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각 문화 기관 간의 협업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기관의 특정 자료가 아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나타남으로써(Marcum 2014, 74) 복합적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 라키비움이 출현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복합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공간적 기능 요소를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학관이 문학 작품을 다루는 대표적인 문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기관 간의 복합공간 협력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학관은 1988년에 건립된 지촌문학관에서 최초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살았던 유명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형태를 의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6). 본 연구에서의 문학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인에 의해 설립되어 작가의 육필원고와 귀중도서, 유품과 같은 소장품을 보관·전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김중우(2014)에 의해 대구문학관의 복합공간으로서의 운영 방향을 검토한 연구가 있으나

문학관 자체의 복합 문화 공간을 논의한 것으로 타 문화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 박물관이 대표 국립 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문학관은 중심축 역할을 해주는 대표기관이 부재한 상황적 측면도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1)</sup>.

본 연구는 문학관이 보유한 자료의 형태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과 같은 타 문화기관과의 차별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복합공간으로의 논의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라키비움이라는 복합공간에서 강조하는 기능적 요소에 대한 정리 및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문학관의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복합 문화 공간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능적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전국 문학관 자료의 특성 및 관리 방법, 전시 방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라키비움이라는 복합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국내 문학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선결되어야 할 핵심사항을 제언하는 것이다.

## II. 선행 연구

2008년 복합공간으로서의 라키비움 개념이 제시된 이후 국내·외에서 기록학과 도서관계, 박물관계를 중심으로 복합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복합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내의 문화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박성진(2008)은 국내의 주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소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조윤희(2008)는 도서관의 문헌, 박물관의 유물, 미술관의 예술품, 기록관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정보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술적, 인적 측면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희(2008)는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대표적 협력기구인 영국의 MLA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사례에 적용가능한 요소를 파악하였고, 국내의 기관

1) 2004년 문학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지역 문학관의 활성화, 정보 교류, 프로그램, 연합행사 개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문학관협회를 조직하였으나 문학관의 특성상 자료가 곳곳에 산재해있고, 지방자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 대표 문학관에 대한 논의는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2008년 한국 근현대문학 100주년을 맞아 재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상징적 공간도 없는 실정이다(오창은 2013, 329). 문학관은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문학관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률망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조직이 없어 오랜 시간 동안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Rayward(1998)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대체자료(surrogates), 박물관은 전시물(objects), 기록보관소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문서(paper records)를 주로 다루었는데, 전자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세 기관 통합이 필요하며, 다루는 자원에 대한 재정의 또한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Yarrow, Clubb and Drapper(1998)는 공공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써 협업하기 좋은 기관임을 제안하고 있다. 협업하기 좋은 예로 전시, 지역 프로그램, 전자자료, 장소사용 협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이후의 연구는 라키비움의 복합적 특성을 기관의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관 내부의 기능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래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유승(2012)은 국회 정보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 보존소, 헌정 기념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과 통합의 비전 공유, 상호 신뢰의 구축, 관련 법령 정비, 협력 영역 및 대상의 확장, 국회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김익한(2011)은 기록관리 기반의 통합형 지식관리를 위해 도서관과 기록관의 통합 기관인 LAC를 적용하여,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학 연구센터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연구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배성중, 배삼열, 김용(2014)은 라키비움이라는 개념을 대학에 도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서관, 박물관과 더불어 기록관의 기능을 융합하여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큰 규모의 대학교는 도서관 및 박물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고, 기록관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대학교는 도서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정훈과 이응봉(2014)은 라키비움의 도입 절차 및 구축 방법과 관련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전문도서관 중의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구축한 원자력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영실(2012)은 복합 문화 시설의 최근 기관 사례와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여 라키비움의 필요성과 기능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최영실과 이해영(2012)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기능적 특성 및 요건을 분석한 토대를 기반으로 라키비움의 요건을 설정하여 공간 기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제안하였다.

Given and McTavish(2010)는 역사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이 문화적인 기록물 저장소로 협업한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 교과과정의 예를 통해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협동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Museum and Archival Studies가 문헌정보학과 대학

원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라키비움 개념이 도입된 초기의 연구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이후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별 기관 단위인 대학교, 대통령기록관, 원자력 라키비움의 기능적인 측면 분석이나 라키비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과 동일선상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Ⅲ. 라키비움 측면에서의 문학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비교 및 분석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그리고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혼합하여 만든 조어(造語)로써, 자료의 디지털화를 기본 전제로 하여 기록을 보존, 연구, 전시하여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황정인 2013). 이에 문학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여 라키비움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최영실, 이해영(2012, 65)은 도서관의 기능을 보존기능, 이용기능, 업무기능, 기타기능을 나누고 4가지 영역에 대한 공간 구성을 수장영역, 이용영역, 업무영역, 공유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기록관은 작업, 보존, 활용, 시설유지, 공용 영역으로 나누었고, 박물관은 학예연구(수집, 보존,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전시, 교육), 행정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최영실, 이해영(2012, 59-70)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표 1>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복합공간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의한 동선체계, 도

<표 1>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 비교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주요 기능	▷도서의 수집, 정리, 열람, 검색, 봉사 관련 기능 ▷도서 열람, 참고, 보존 ▷지식 전달, 교육	▷기록물 인수 ▷보존기록관으로 이관 ▷기록물의 보존, 관리, 평가, 폐기 ▷기록정보센터 운영	▷문화유산이 연구, 수집, 분류, 정리, 등록, 보존, 전시, 교육 ▷전시, 문화교육 등
주요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전시 및 출판, 견학, 이용자 교육,	기록정보서비스 강좌 및 세미나, 영상물 상영 등	전시관련서비스
공간 요소	▷ 열람 및 보존: 일반 열람실, 디지털 열람실, 보존서고 ▷참고정보: 참고정보서비스 데스크, 대출복사서비스 ▷교육: 멀티미디어실, 교육실, 세미나실	▷기록관리 및 보존: 입수실, 등록실, 정리실, 기술평가실, 소독탈산실, 복원실, 스캐닝실, 인코딩실, 마이크로필름제작실, 수장고, 비밀수장고	▷보존: 수장고 ▷전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 ▷교육: 교육실, 세미나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서관의 도서 열람 및 정보봉사 서비스, 박물관 보존 및 전시의 핵심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원일(2004)과 김종우(2014, 259)는 문학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문학관의 설립 및 운영주체별 특징

분류	특징	주 역할 및 대표기관
종합문학관	전국 규모로 고전부터 현대까지를 포함한 한국어로 된 모든 문학작품을 보관, 전시, 분류한 문학관	문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 한국현대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
도(시/군)립 문학관	지방이 배출한 문인이나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의 특성을 기리며, 지역 주민에게 출신 고장의 문인이나 작품의 소재를 알게 하는 문학관	목포문학관, 경남문학관
개인기념관	지방 출신 중 특별히 문학적 가치와 후세에 이름이 회자되는 작가를 기리려는 지방자치단체, 후학, 후손들이 세운 문학관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관 작가의 집, 개인 기념관

문학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를 가져오나 문학관의 핵심 기능인 대표 작가의 작품을 보관, 전시, 분류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문학관협회와 각 문학관의 포털 홈페이지에 명시된 문학관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여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과 비교하였고, <표 1>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복합공간에 적용가능한 기능적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대표적인 문화서비스 기관인 문학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수집하는 자원의 속성만 다를 뿐, 수행하는 기능은

<표 3> 라키비움 복합공간에 적용가능한 문학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특징 비교

	문학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자료	도서, 육필원고 등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등	각종 기록물	박물관 (문화 관련)
핵심 기능	▷작가의 육필원고 및 작품 전시와 보존 ▷체험 프로그램	도서자료의 수집, 조직, 보존, 열람, 검색 및 제공	▷기록관리업무 프로세스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기능	▷박물관 보존과 전시 ▷전문 학예사 연구 사무
자료 수집 방법	기증, 구입	구입, 기증, 교환 등	이관, 기증, 수집 등	구입, 기증
자료 정리 방법	자체 표준 (혼용)	도서분류체계	기록관리기준표	등록대장
운영 형태	혼용 (희귀자료는 폐가제)	개가제	폐가제	혼용 (상황에 따라 다름)
열람 형태	오프라인 열람	온/오프라인 열람	온/오프라인 열람	온/오프라인 열람
주요 서비스	문학작품 전시 체험 학습, 연구	정보 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전시 및 출판, 견학, 이용자 교육, 강좌 및 세미나, 영상물 상영 등	전시관련서비스
핵심 공간 요소	도서 보존, 전시관, 체험관	서고, 사서사무, 도서 열람, 대출, 참고, 정보서비스 공간 요소	기록관리 프로세스 동선	자원별 박물관 보존 및 전시 공간 요소
연관 복합 시설	▷대만 문학관 ▷일본국립문학관	▷명지대방목학술정보관 ▷샌다이미디어테크	▷세종시대통령기록관 ▷아시아문화정보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복합공간을 구현함으로써 통합된 효율적인 업무 및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창은(2013, 330)은 문학관 건립구상에 있어 라키비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문학관은 문학이라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문학도서관, 문학아카이브, 문학박물관, 휴식공간이 모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오창은(2013)과 김종우(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학관의 복합공간으로서 적용 가능한 기능 및 특징, 그리고 주요 활용 공간에 대해 <표 4>에 정리하였다. 문학관은 소장된 자료의 종류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문학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문학과 관련된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을 기대하고 있다.

<표 4> 국내 문학관의 라키비움적 기능 및 주요 공간

기능	특징	주요 공간
문학유산의 보존 및 활용	▷ 희귀 자료의 복각본 또는 영인본 제작 ▷ 문학 유산 전시 및 활용	▷ 문학 도서관 ▷ 문학관 운영실
문학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	▷ 문학 유산을 네트워크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문학 관련 영상물 수집 및 보관, 정기 상영 ▷ 디지털 정보로 구축	▷ 아카이브 기록실 ▷ 시청각 자료실 ▷ 기획 전시실
문학 연구와 대중화	▷ 알려지지 않은 문학 작품의 발굴 ▷ 연구 역량과 전시 역량 강화	▷ 문학연구센터
문학을 위한 창조의 장	▷ 재생산의 토대 ▷ 다른 장르와 융복합하는 예술 생산	▷ 문인창작실 ▷ 게스트 하우스
문학교육의 공간	▷ 문학 강좌 및 세미나 ▷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세미나실 ▷ 강의실
이용자를 위한 쉼터 제공	▷ 시민의 특별한 체험과 휴식 공간 ▷ 테마별 구성, 상징물 등으로 문학 공간의 재현 ▷ 일상적인 독서가 가능한 공간	▷ 문학기념품점 ▷ 문학카페 ▷ 야외 문학공원

####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들의 정체성, 자료 관리 실태,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국내의 문학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의 보고서에서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개발하였다. 세부 항목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 자료 수집 및 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3)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4) 운영 및 정체성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원래는 각 항목에서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4호)

6-7개의 하위 질문으로 구성되어 총 4장의 설문지로 구성되었는데, 연구의 과정에서 회수율을 높이하고자 간략하게 1장으로 된 설문지로 수정하였고, 주관식 질문을 최대한 줄인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설문지 내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표 5> 설문 항목 구성

대 항목	질문 수	세부 설문 항목	질문 유형	
자료 수집 및 관리	7	2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의 범위	객관식
		1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사항	객관식
		3	회기 자료의 유/무 및 관리 여부	주관식, 객관식
		1	자료 관리 시 사용하는 표준	객관식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2	1	전시 주제 구분 기준	객관식
		1	효과적인 전시 방법	객관식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	2	2	성공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유	주관식, 객관식
운영 및 정체성	5	1	주요 관람층	객관식
		1	운영상의 어려움	객관식
		1	문학관이 미술관, 박물관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	주관식
		1	한국문학관 네트워크 체계의 필요성	객관식
		1	대표문학관의 정체성과 역할	주관식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제공받은 국내 문학관 리스트에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문학관”, “문학의 집”을 검색하였고, 신규로 파악된 문학관을 포함하여 74개의 문학관 리스트를 확보하였다.<sup>2)</sup> 일차적으로 문학관협회 홈페이지와 74개 문학관의 개별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여 지역별 문학관 수, 개관연도, 설립 주체 구분, 주제 구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자료의 수집은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였고,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후에 1차적으로 FAX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회신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관의 담당자 전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 중 3개의 문학관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였다.<sup>3)</sup> 인터뷰는 설문 응답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문학관 당 약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 담당자의 동의 하에 음성을 녹음하였다.

2)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제공된 리스트는 총 72개의 문학관이었고, 추가적으로 확인한 문학관은 “윤동주 문학관”과 “이외수 문학관”이 있다. 두 문학관은 최근에 개관된 문학관으로 한국문학관협회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개관이 되었음에도 본 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국내의 문학관이 있을 수 있다.

3) 인터뷰는 설문 항목에 대한 재확인과 일부 응답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기 위해 수행되었다. 강원도의 A문학관, 전라남도의 B문학관, 서울의 C문학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학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설문지 구성 항목의 내용에 따라 자료 관리 및 전시 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정체성에 대한 인터뷰 답변의 내용을 본문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의 회수율은 약 48%였고, 회수된 36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한 2개를 제외한 34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 자료를 녹취한 후 요약하여 설문 분석 하단에 정리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문학관의 기초 현황

<표 6>은 설문조사 이전에 74개 국내 문학관의 지역별, 개관연도별, 설립주체별, 주제별 문학관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2015년 6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상도에 21개의 문학관이 설립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립연도별 문학관 수를 살펴보면, 2000~2010년 사이에 건립된 문학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건립이 활성화되어 현재까지도 건립이 계속해서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설립주체별 문학관 수를 살펴본 결과, 공립이 가장 많았고 사립 문학관 수도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학관이 있

<표 6> 국내 문학관의 기초 현황 (2015. 6월 기준)

항목	빈도	비율 (%)	
소재지	서울	8	11
	경기	8	11
	충청	11	15
	경상	21	28
	전라	15	20
	강원	10	14
	제주	1	1
설립연도	~1989년	2	3
	1990~1999년	10	14
	2000~2009년	48	65
	2010년~	14	19
설립주체	국립	1	1
	공립	36	49
	대학	4	5
	사립	33	45
주제 구분	작가	37	50
	작품	6	8
	지역	16	22
	시대	5	7
	장르	10	14
합계	74	100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학관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주제는 작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학관 수도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의 문학관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 형태로 건립되었다는 맥락과도 일치하는 기초 조사 결과이다. 문학관 기초 조사 결과 지역, 운영 주체별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활발하게 건립되었으며 작가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설문 및 인터뷰 결과

### 가. 자료 수집 및 자료 관리

국내 34개 문학관의 자료 수집 방법 및 수집 자료 범위,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사항에 대한 응답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관 자료 수집의 대부분은 기증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나 위탁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범위는 육필원고 등의 간접자료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자료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수집대상이 희귀하다는 응답도 32%로 나타났으며,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21%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7> 국내 문학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실태

항목	빈도	비율 (%)	
자료 수집 방법	기증	19	56
	구입	12	35
	대여	1	3
	위탁	2	6
	기타	0	0
수집 자료의 범위	도서 자료	13	38
	육필원고	15	44
	시대상 자료	4	12
	기타	2	6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사항	인력	7	21
	예산	16	47
	수집대상 희귀	11	32
	기타	0	0
합계	74	100	

이어서 국내의 문학관이 보유한 희귀본 도서나 귀중 자료에 대한 주관식 질문의 결과는 <표 8>과 같이 크게 육필 원고, 자서전, 도서 자료, 기타 자료인 동영상과 사진 자료로 구분된다. 문학관이 작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작가의 자서전이나 육필 원

고, 작가의 첫 시집, 초판본 등의 희귀 도서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사용 육필원고, 백범 자서전, 김유정 소설집 동백꽃, 이광수의 무정 초판본, 친필 고문서 등이 있다.

〈표 8〉 문학관이 보유한 희귀본 도서나 귀중 자료

육필 원고	▷노작 홍사용 육필원고 “청구가곡”, “청산백운” ▷시문학과 대표문인 5인의 육필원고
자서전	민족 백범일지 김구자서전
도서 자료	▷김유정 소설집 동백꽃 ▷김억의 특별호화한정판 시집 망우초 (1934) ▷박인환 선시집 ▷이광수 <무정> 초판본 ▷촛불, 슬픈 목가 도서 자료 ▷시조시학 ▷1959년 이전 발간 문학도서 ▷백석 시인 첫 시집 ▷대전 및 대전 외 지역 문예지 창간호 일부 ▷『여명』(1925) 창간호 등 창간호 30여종과 1910~30년대 출판물 1천여점
기타 자료	백범 김구 각종 무궁훈장 김정희의 추사간찰 백호친필고문서 (약 400년 전의 기록물로 추정)

다음의 <표 9>는 문학관이 자체적으로 희귀 자료를 관리하는 별도의 수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료의 디지털화 여부 및 자료 관리 표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학관의 절반이 조금 못 되게 별도의 수장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별도의 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문학관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희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2%의 문학관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학관 자료를 관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표준, 박물관 표준도 일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9〉 국내 문학관의 희귀 자료 수장시설 여부, 디지털화 여부, 자료 관리 표준 실태

항목		빈도	비율 (%)
희귀 자료의 별도 수장시설 유·무	유	16	47
	무	18	53
희귀 자료의 디지털화 유·무	유	6	18
	무	28	82
자료 관리 시 사용하는 표준	도서관 표준	5	15
	박물관 유물 표준	5	15
	자체 표준	21	64
	기타	2	6
합계		34	100

국내 문학관의 자료 관리에 대해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문학관은 타 기관과는 달리 작가 중심의 육필원고 및 희귀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희귀 도서의 경우 개가형이 아닌 폐가형으로 운영되어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 담당자가 문학을 전공한 학예사가 아니어서 자료의 수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문학관 담당자: 문학관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도서 자료가 위주인데 저희는 작가의 육필원고, 소설집, 희귀 도서 등 작가의 작품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희귀본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열람의 목적을 밝힌 후에 열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B문학관 담당자: 문학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가 문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문학 전공 학예사가 많아져야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학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방법을 분석한 결과 국내 문학관의 자료 수집은 문학관 설립 시 기증과 구매를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집 범위는 간접적인 자료에서 시대적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현황을 살펴 보면 대부분 예산, 희귀 자료 수집,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부 자료 수집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보관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문학관이 라키비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아카이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학관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학관의 자료 수집과 관리의 열악한 환경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 관리를 위해 아카이빙 시스템 마련 및 공유, 수장고 계획,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문제까지 모두 고려하여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전시 주제 구분 및 방법

<표 10>은 문학관의 전시 주제 구분 및 방법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시 주제 구분 기준에 대한 응답은 작가의 인생, 작품 중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문학사에 따른다는 응답도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지역 기준 및 기타 응답도 일부 나타났다. 문학관의 효과적인 전시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진열장과 키오스크 전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질 수 있는 모사품, 동영상, 체험도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국내 문학관의 전시 주제 구분 기준 및 효과적인 전시 방법 실태

항목	빈도	비율 (%)	
전시 주제 구분 기준	문학사	9	26
	작가 일생	10	29
	작품	10	29
	지역	1	3
	기타	4	12
효과적 전시방법	만질 수 있는 모사품	8	24
	일반진열장	10	29
	키오스크	10	29
	체험도구	2	6
	동영상	4	12
합계	34	100	

국내 문학관의 전시 관리의 특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전시 기능은 박물관학을 전공한 인력이 있어 자료 관리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학관 학예사의 대부분이 박물관학이나 미술 전공의 학예사이거나 혹은 타전공 학예사이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업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문학관 담당자: 우리 문학관은 박물관학을 전공한 학예사가 있어 전시 기능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학관이 관리하는 주요 자료가 도서나 유품, 육필원고 위주이기 때문에 전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국내 문학관 학예사 중에는 문학 전공자가 거의 없고, 박물관학을 전공했거나 미술, 혹은 전혀 관련없는 분야를 전공했을 수 있습니다.

문학관의 전시 주제 구분 및 방법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문학관은 대부분 작가의 일생과 작품 중심으로 전시 주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 진열장과 키오스크 전시의 형태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문학관은 도서 자료나 육필원고, 일기, 편지 등 텍스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 전시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진열장 전시 방법, 방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키오스크 전시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도서과 문학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다. 교육 프로그램

가장 성공적이거나 참여율이 높았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식 응답 내용과 성공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표 11>과 같다. 각 문학관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크게 문예 교실, 문학 기행 및 축제, 체험 프로그램, 낭독 및 글짓기 대회이다. 상시로 운영되는 문예학교, 글짓기 대회 및 문예체험 교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판을 제작하여 탁본하는 체험 활동,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같은 문학 기행을 문학관에서 운영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이유는 컨셉이 41%, 강사 및 주제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국내 문학관의 성공적인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공 이유

문예 교실	▷2015년 문예학교 ▷문예체험 교실 ▷독서체험 교실 ▷나의 아버지 김영랑을 말하다 (시문학과 9명의 유족을 강사로 초빙해 생생한 회고담 전달)		
문학기행 및 문학제	▷고향의 봄 문학기행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김유정 문학제		
체험 프로그램	가시문학의 자료를 목판제작하여 탁본하는 체험 활동		
낭독 및 글짓기 대회	▷글짓기 대회 ▷낭독회		
	항목	빈도	비율 (%)
프로그램 성공 이유	컨셉	15	43
	주제	7	21
	강사	7	21
	기타	5	15
	합계	34	100

국내 문학관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학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문학관 담당자: 저희 문학관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시 이어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일반인의 구분없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7회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A문학관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의 인지도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좋은 강사를 모셔오는 일에 한계가 있지만 다양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학관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학관의 교육 및 프로그램은 문예 학교, 낭독회, 문학교실, 글짓기 대회 등 문학관의 성격,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로는 컨셉 및 강사, 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문학관 자체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홍보를 통해 문학관의 역할을 대중에 알릴 필요가 있다.

#### 라. 문학관 운영 및 정체성

<표 12>는 문학관의 주요 관람층, 운영상의 어려움, 네트워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학관의 주요 관람층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생 등 단체가 44%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이 32%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관 운영에 있어 봉착하는 어려운 점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한 응답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접근성과 홍보마케팅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문학관 담당자의 91%가 문학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국내 문학관의 주요 관람층, 개선되어야 할 사항, 네트워크 체계의 필요성

항목		빈도	비율 (%)
주요 관람층	일반인 (가족 단위)	11	32
	단체 (학생)	15	44
	문학인	6	18
	연구자	1	3
	기타	1	3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인력 부족	12	35
	시설 노후	1	3
	예산	12	35
	홍보 및 마케팅	3	9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4	12
	기타	2	6
문학관 네트워크 체계의 필요성	필요하다	31	91
	필요하지 않다	3	9
합계		34	100

설문 결과 국내의 문학관이 처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학관의 성공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앙기관의 부재, 법률적 보호망이 미비하다는 점이 현재 문학관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학 전문 학예사의 부재로 문학의 특성을 살려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희귀본을 다루는 업무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복합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문학관 담당자들에게 문학관이 미술관,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sup>4)</sup> 세 기관의 담당자 모두 다루는 대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타 문화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문학관 담당자: 문학관이 타 기관에 비해 시설이나 환경에서 많이 열악하고, 법적인 보호망이 미비합니다. 또 타 기관에 비해 작가 생전의 예술적 내면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부족하며, 유품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학관은 모든 예술문화의 뿌리인 문학관은 미술관, 박물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정신문화 발달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적 감동이라는 면에서는 타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학관이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B문학관 담당자: 미술관이 아트뮤지엄이듯이 문학관 또한 큰 의미에서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 사례처럼 박물관이라는 광범위한 테두리 내에서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A문학관 담당자: 문학관은 문학 전문가가 기관을 운영하고, 문학을 위주로 수집과 창작,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구체적인 ‘물건’ 을 전제로 하는 반면, 문학관은 추상적인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이는 문학관이든, 미술관이든, 각 기관이 지향하는 성격에 따라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 기관의 담당자에게 국내의 문학관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하였고, 한 담당자는 문학관이 처한 예산 문제와 전문 인력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설문 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여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문학관 협회에 소속된 문학관 중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곳도 꽤 많습니다. 또 문학관은 문학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 학예사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박물관학이나 미술을 전공한 학예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문학관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일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희귀본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영인본 작업도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담당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4) 문학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설문 항목에 주관식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문학관과 타 문화 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 Ⅵ. 결론 및 제언

디지털 시대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로 인한 문화 기관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복합공간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의 중요한 문화 기관 중의 하나인 문학관에 대한 자료 관리 실태, 전시 운영 실태, 운영 프로그램 실태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조사를 통해 문학관이 복합공간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요소들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합공간 논의에 포함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 및 설문,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문학관의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관은 자료 관리 시 도서관, 박물관 표준을 다수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료의 개방에 있어 도서관과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료는 개가제로, 희귀 자료는 폐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화 및 희귀본 관리에 있어 미흡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둘째, 문학관의 전시 기능은 박물관의 전시 형태처럼 진열장을 주로 사용하고, 키오스크 전시 또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문학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도서관처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강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문학관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학예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문학관이 타 문화 기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학의 보존과 전시기능, 열람기능, 체험과 학습, 연구와 교육, 창작과 유통 기능, 공연과 특별 기획 등을 통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기능까지 담당하는 박물관이며, 도서관이자 기록보관소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으며 담당자들 또한 이러한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였다.

문학관이 복합공간의 형태인 라키비움으로 운영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자료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독립적인 문화공간이 아닌 복합공간으로써의 문학관은 다양한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더 다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디지털화된 자료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화와 희귀본 관리는 도서관과 기록관이 가진 전문적 영역으로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전시 기획에 있어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전시 기획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시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타 기관과의 유사점이 발견되며, 질적인 측면 강화를 위한 문학관 간의 협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타기관 간의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 인력 및 예산 문제는 문학관이 아닌 모든 문화 기관에서 겪는 문제로 협력으로 인해 예산 및 공간의 낭비를 어느 정도는 해소 가능하며, 탄력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의 문학관은 현재 법률적인 보호망이 존재하지 않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문학관 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립문학관의 역할 및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관 담당자의 91%가 문학관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예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표 문학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일 것이다.

문학관은 타 기관과는 다른 “문학” 자원을 가진 고유의 기관이자, 타 기관과의 협력으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문학관 커뮤니티는 문학관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문학관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독자적인 기관이 될지 협력모델에 포함이 될 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9. IFLA 전문보고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협력 동향②. 『도서관연구 소 웹진』, 32: 1-24.
- 김원일. 2004. 지방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문학관. 『문학관협회 실무자 워크숍』. 2004년 11월 26일. 원주: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munhak/munhak.asp?tblName=munhakBest&curMenu=5&curPage=5&keyType=&keyWord=>> [인용 2015. 11. 17].
- 김익한. 2011. 대통령기록관이 추구해야할 그랜드디자인. 『대통령기록관 발전방안 세미나』. 2011년 6월 15일. 세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김종우. 2014.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학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8(1): 253-277.
- 박성진. 2008.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박물관·기록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75-88.
- 박재용, 조윤희. 2004.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315-333.
- 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16(2): 25-41.
- 오정훈, 이용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 오창은. 2013. 국립 근대문학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 근대문학관의 '의미구성'과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327-351.
- 조윤희. 2008.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5-21.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정보대학원.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53-80.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국립근대문학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황정인. 2013. (10)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의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 『ArtMuseum』, 173. <[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2\\_12](http://www.artmuseums.kr/admin/?corea=sub2_12)> [인용 2015. 12. 5].
- 황진현, 임진희. 2012.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기록학연구』, 33: 155-206.
-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 [인용 2015. 11. 16].
- Given, L. M. and McTavish, L. 2010. "What's Old Is New Again: The Reconvergence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in the Digital Age".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80(1): 7-32.
- Marcum, Deanna. 2014. "Archives, Libraries, Museums: Coming Back Together". *Information & Culture*, 49(1): 74-89.
- Rayward, W. B.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E. Higgs (Ed.),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pp. 207-226). Oxford: Clarendon Press.
- Yarrow, A., Clubb, B., and Draper, J. L.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Trends in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08.

<부록>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한국의 문학관을 대상으로 문학관 운영 및 자료 관리, 전시관리, 이슈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문학의 보존 및 연구의 중심이 되는 문학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입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별로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를 해 주세요. 기타 응답은 주관식으로 내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1.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 1) 자료 수집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기증 [ ] ②구입 [ ] ③대여 [ ] ④위탁 [ ] ⑤기타 [ ]
- 2) 수집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①도서 자료 [ ] ②육필원고 [ ] ③시대상 자료 [ ]  
 ④기타 [ ]
- 3) 개관 이후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①인력 [ ] ②예산 [ ] ③수집 대상 희귀 [ ] ④기타 [ ]
- 4) 희귀본 도서나 귀중 자료는 무엇이 있으며,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희귀본 이름 [ ]  
 4-1) 희귀본에 대하여 별도의 수장시설 있는가? ①예 [ ] ②아니오 [ ]  
 4-2) 희귀본에 대하여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는가? ①예 [ ] ②아니오 [ ]
- 5) 자료정보 기록시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도서관 표준 [ ] ②박물관 유물 표준 [ ] ③자체 표준 [ ] ④기타 [ ]

---

2. 전시 관련

- 1) 전시주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였는가?  
 ①문학사 [ ] ②작가 일생 [ ] ③작품 [ ] ④지역 [ ] ⑤기타 [ ]
  - 2) 문학관 특성 상, 도서 전시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어떠한 전시방법이 효과적인가?  
 ①만질 수 있는 모사품 [ ] ②일반진열장 [ ] ③키오스크 [ ] ④체험도구 [ ]  
 ⑤동영상 [ ] ⑥기타 [ ]
-

3. 교육 등 프로그램 관련

- 1) 가장 성공적이거나, 참여율이 높았던 운영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들 수 있는가?  
프로그램명 [ ]
- 1-1)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①컨셉 [ ] ②주제 [ ] ③강사 [ ]  
④기타 [ ]
- 

4. 일반 운영 관련

- 1) 문학관의 주요 관람객 층은 누구인가?  
①일반인(가족 등) [ ] ②단체(학생 등) [ ] ③문학인 [ ] ④연구자 [ ]  
⑤기타 [ ]
- 2) 문학관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인력 부족(연구/행정) [ ] ②시설 노후 [ ] ③예산 [ ] ④홍보마케팅 [ ]  
⑤대중교통 등 접근성 [ ] ⑥기타 [ ]
- 3) 문학관이 미술관/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관식 [ ]
- 4) 한국문학관이 국립으로 건립된다면 문학관과의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①예 [ ] ②아니오 [ ]
- 5) 한국문학관(국립)이 건립된다면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주관식 [ ]